

엄마! 아빠에게 휴가를 주세요

익산시, 코로나 '멈춰'... 긴급 안전돌봄 방역체계 돌입

익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조기 방학과 휴원에 들어가자 즉각 긴급 아동 안전돌봄 방역체제가 돌입했다.

시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관리 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아동 이용시설 특별방역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백신 미접종 그룹인 11세 이하 아동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0일부터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즉각 지역 내 아동시설을 긴급돌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245개소에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시설 내 밀집도 방지를 위해 가정돌봄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 이용 아동수를 30% 이내로 제한한다.

휴원기간 중 외부 강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자제 및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분산 배식 등 아동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돌봄운영을 하는 아동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다.

확진시설 및 대형어린이집 중심으로 245개소를 전수 대상으로 각 시설담당 공무원들의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통학차량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동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주1회 PCR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백신 접종 독려 및 방역조치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감염병 예방 및 가정 돌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마! 아빠에게 휴가를 주세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휴가 사용 권장에 나선다. /익산=이특훈 기자



동백대교가 새롭게 야간조명을 설치해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개선사업 추진

동백대교가 새롭게 야간조명을 설치해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추진해 온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 및 개선사업에는 약 40여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이후에는 군산과 서천에 야간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대교는 연장 3.185km 폭 20m로, 지난 2018년에 개통해 전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외에도 두 지역 간의 대표 브랜드라는 상징성 및 상생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우선 서천군과 행정협의회를 통해 기능개선 및 조명설치 등 실무적인 내용을 익산청과 함께 연초에 마무리

리한다는 계획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백대교는 2023년 새만금 세계문화비대회,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 세계문화유산 갯벌의 생태도시 서천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교통과 물류를 포함한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될 것이다”며, “침체된 지역경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의 시너지 효과 및 군산과 서천 두 지역간 상생하는 모습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 모범적 협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동백대교 사업과 관련해 국회본청 건의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문 전달,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 대응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한명봉기자

‘익산 쌀’ 2만4천톤 올해 기업 맞춤형 공급 확정

CJ·하림·본아이에프·수도권 학교급식 등 맞춤형 생산 확정

익산시는 올해 기업 맞춤형 익산 쌀을 확대 공급해 45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올해에 기업형 맞춤형 원료곡 2만 4천톤을 생산해 CJ(씨제이), (주)하림, 본아이에프,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6.3%가 증가한 1,450톤 물량을 공급해 4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대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 19년 315억원에서 21년에는 420억원, 올해는 450억원으로 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해 6년간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시는 2019년부터 CJ 햇반 유기농 원료곡 공급 지자체 중 익산 친환경 쌀 150여 톤을 공급해 1위를 차지하



익산시는 올해 기업 맞춤형 익산 쌀을 확대 공급해 45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고 있으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 하려는 (주)하림의 즉석밥 원료곡을 전량 공급한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축(粥)식품 메

이커인 본아이에프(본죽, 본도시락)에 탐미 쌀을 공급하는 등 익산 쌀 판로 문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익산=이특훈 기자

군산시, 새해 이웃돕기 성금 줄이어

2022년 새해에도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는 4일 (주)대왕페이퍼(구 대왕제지공업(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왕페이퍼는 재활용지를 활용해 친환경제품(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1961년 설립 이래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김동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직과 인내와 결순의 자세로 믿음과 선의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울림환경기술원(대표 여성구)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300만 원을 기부했다.

임피면에 소재하고 있는 울림환경기술원은 석면조사분석, 환경설비 전

문공사업체이다.

여성구 대표는 “주위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체인 (유)아미산업에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나포면에 소재한 (유)아미산업(대표 신영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및 이웃돕기성금 지원 등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산=한명봉기자

새만금화학, 군산시에 요소수 200박스 기탁

군산시는 오식도동에 소재한 새만금화학(주)(대표 황성진)이 요소수 200박스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요소수는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청소차와 같은 사회 필수차량에 사용될 예정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 차량에 전량 사용된다.

새만금화학 황성진 대표는 “군산에서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되었다”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군산 2국가(법단)에 입주 중인 새만금화학(주)은 요소수 및 3인산 소다용액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과 주유소 등에 요소수와 기타 화학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군산=한명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 기관 선정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이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맡아 위탁 운영한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을 민간위탁 운영 기관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민간위탁의 강점인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 장애인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과 책임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력·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연면적 325.49㎡(99평)규모로서 직업훈련실, 정보화교실, 휴게실, 사무실, 음악활동실, 문해교육실 등 장애인 인프라를 고루 갖춰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특훈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는 2022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사업을 비롯해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수중, 마루), 장애인보조기기렌탈, EYE1.004건강두드림, 정신건강 토탈케어, 청소년(전)형성지원, 이등·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 활동건강관리, 노인문화여가토탈, 청소년재활성매치지원, 글로벌마인드형성, 성인심리지원, 노인맞춤형주거관리 등 총15개 사업이다. /군산=한명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